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1년 3월 11일 (목)

CONTENTS

-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정책효과

이슈브리프
(IB 2021-04)

CONTENTS

- I.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 1
- II.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 9
- III.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정책효과 / 23
-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종인, 이윤식

편집간사: 이시우

발행일: 2021년 3월 11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이번 호(3월 2째주)는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정책효과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김창배 경제정책1실장)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힘을 싣기 위한 여권발(發) 억지 통계 해석과 주장이 난무.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G20중 하위권이니 “나랏 돈을 화끈하게” 풀어라 △선별이 아닌 일괄지급해야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 △한국의 재정상황은 양호하다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 경기회복이 어렵다 등이 대표적. 검증 결과,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도 ‘선별지급’ 되어야 함.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의 선(先)제 시도 병행되어야 함

제2편: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조세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종인 수석연구원)

서울의 경우 녹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택지공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기 개발 지역의 재개발·재생을 통한 양질의 주택을 다량 공급하는 도시재구조화가 최선의 방안임. 이에 서울 도시·주택정책의 현황을 진단해 본 후 메가시티 서울에 특화된 ‘한강 슈퍼그린복합주거벨트(SGBRCB)’ 구축 방안을 제시함. 동 정책의 추진을 통해 한강 수변공간에 양질의 주택 30만호의 공급과 더불어, 뉴욕 센터럴파크의 3배가 넘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등으로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녹색일자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임

제3편: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정책효과 (장경수 선임연구원)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시민기본권,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해결책, △기존 복지체계의 개선책 등으로 보는 견해로 구별되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물론 제도 도입의 당위성도 상당히 상이함. 어느 것이나 문제는 월 30만 원씩 지급 시 소요되는 연 192조 원의 막대한 자원 마련 방법이며 더불어 양극화 해소 및 경기 부양에 대한 실효성도 논란임. 따라서 당장은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 현재 복지체계의 내실화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을 지향해야 함을 대안으로 제안함

1.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작성: 김창배 경제정책1실 실장 (kim.chang.bae@ydi.or.kr)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힘을 실기 위한 여권발(發) 억지 통계 해석과 주장이 난무.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G20중 하위권이니 “나랏 돈을 화끈하게” 풀어라 △선별이 아닌 일괄지급해야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 △한국의 재정상황은 양호하다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 경기회복이 어렵다 등이 대표적. 검증 결과,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도 ‘선별지급’ 하는 것이 적절.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의 선(先) 제시도 병행되어야 함

1. 논의의 배경

- 3월 4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내고 전(全) 국민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
 - 작년 2분기만 양극화 지표가 개선된 것은 2분기에 지급된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것
-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 짓기에는 통계 해석이 다소 억지라는 비판이 제기
 - 즉, 동일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되면 분모가 적은 저소득층 소득의 증가율이 높아져 소득분배수치가 개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
 - 또한 이 통계를 역(逆)으로 해석하면 지원금의 효과가 한 분기에 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 이처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힘을 실기 위한 여권발(發) 억지 통계 해석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

2. 지원금의 근거로 인용된 '억지 통계들'에 대한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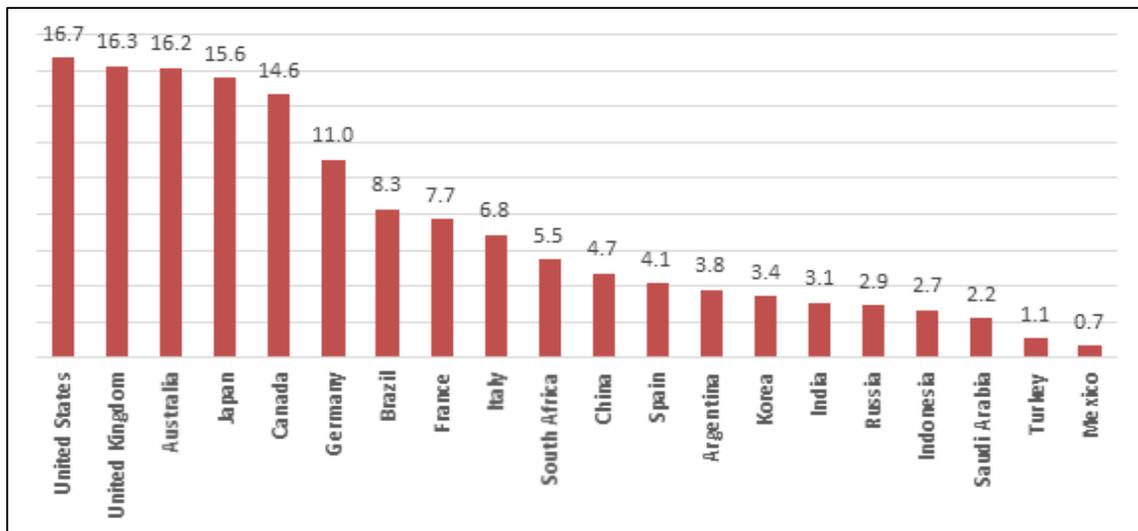
㉠ 한국의 코로나 재정지출, G20중 14위?

○ 여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재정지출이 G20중 하위권이라며 “나랏 돈을 더 화끈하게 풀어라”라고 주장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 대응 추가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의 3.4%(560억 달러)로 G20 20개국 중 14번째 순위

<그림 1-1> G20 국가들의 코로나19 지원 추가재정지출 및 감세(2020년)

단위: % of GDP



자료: IMF, Fiscal Monitor updates (Jan. 2021)

○ 피해상황, 경기상황 등을 무시한 채 상관성 없는 국제 비교수치만 내세워 ‘적으니 늘려라’라는 아주 단세포적 선동에 불과

- 코로나19 피해상황과 비교하면 우리 재정지출은 오히려 과다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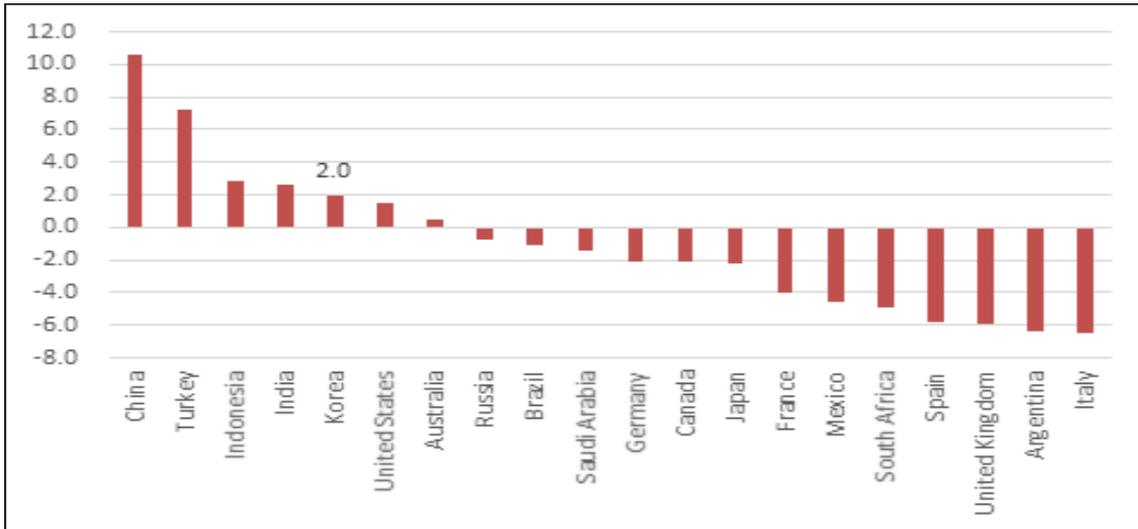
• 인구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로 볼 때 우리나라 피해 심각성은 20개국중 18~19위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재정지출(14위)은 줄여야 할 판

-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여당이 자화자찬한 한국의 성장률의 높은 국제 순위와도 모순

- 2020년 성장률은 -1.1%(IMF 전망)로 G20 중 중국 터키에 이어 3위
- 2021년 3.1% 성장하면 2019년 GDP수준을 추월하는 몇 나라에 포함

〈그림 1-2〉 2021년 GDP가 2019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IMF 전망 기준)

단위: % of 2019 GDP



② 일괄지급해야 경기진작에 효과적?

○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은 일반적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을 제시

- 미국의 2020년 경기부양책에 대해 미 의회 예산국은 지출된 1달러당 60센트만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또한 올 1월 2021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로머 UC버클리 교수는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양책 규모가 뉴질랜드 다음으로 컸지만 별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지적
- 로머 교수는 "정책 당국자들은 위기 대응 정책을 펼칠 때 가성비(bang for the buck)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제언

- 우리나라의 경우, KDI는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

- 재난지원금 투입재원 대비 매출증대 효과는 26.2~36.1%에 불과,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

○ 가계·기업은 미래에 대한 기대(expectation)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금은 소비·투자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함

- 즉, 국가채무가 100조 원 증가한다고 알려지면 경제주체들은 100조 원 이상의 세금 인상을 예상하면서 현재의 소비 및 투자를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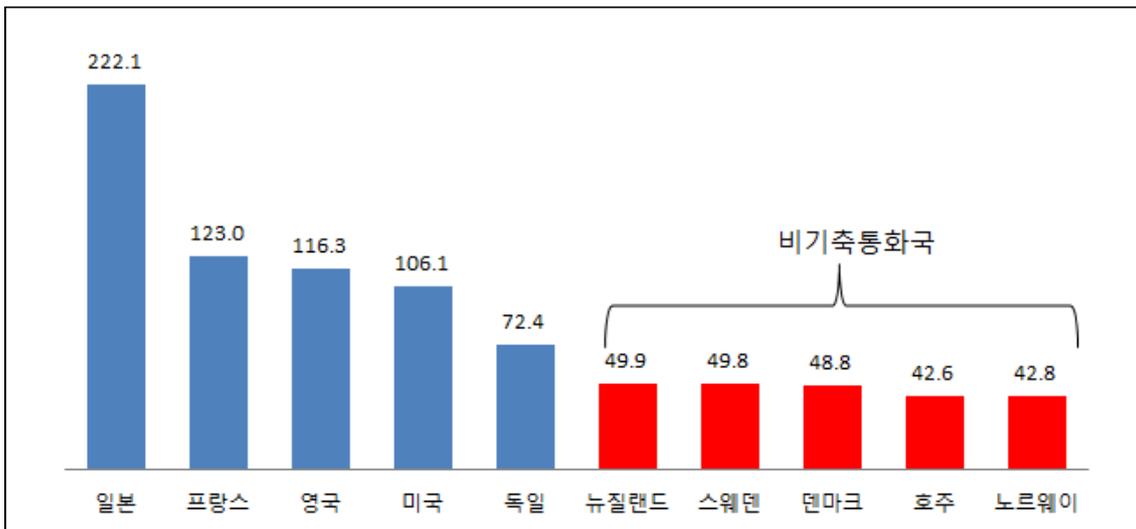
③ 한국의 재정은 양호?

○ 우선, 한국과 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기축통화국이 아닌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50% 미만으로 낮게 유지

〈그림 1-3〉 OECD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2017년)

단위: 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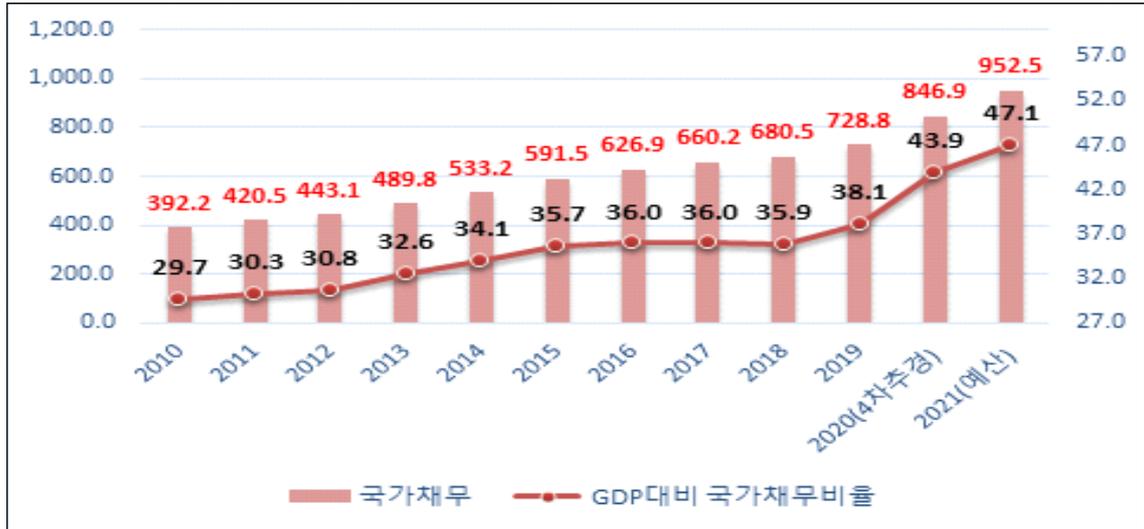
○ 더구나 코로나 장기화로 한국의 재정위기 위험은 더 커지는 모습

- 초슈퍼예산에 4차례 추경 편성이 더해지면서 2020년 국가채무는 846.9조 원을 기록, 2019년(728.8조 원) 대비 무려 118.1조 원 증가

• 국가채무비율은 동기간 38.1%에서 43.9%로 무려 5.8%p나 급등

〈그림 1-4〉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단위: 조원, %



-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5차 지원금 그리고 대선용 선심성 공약 등 모두 재정건전성에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9.9조 원의 국채발행을 포함하면 2021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상승하고 만약 추가적 지원금과 선심성 정책이 가세한다면 이 비율은 쉽게 50%를 넘을 전망

○ 이같은 재정책장이 지속되면 지원금의 경기진작 효과마저도 소멸

- 지금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장기적 재정건전성은 나중에 해결하자는 주장은 기축통화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나 가능
- 미국은 자체 통화로 차입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부채를 갚을 수 있고 더구나 미 국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낮은 이자율 유지가 가능함
-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과도한 국채발행이 금리 상승을 초래해 국민이 받은 지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4 국민에게 소비할 돈이 부족해 경기회복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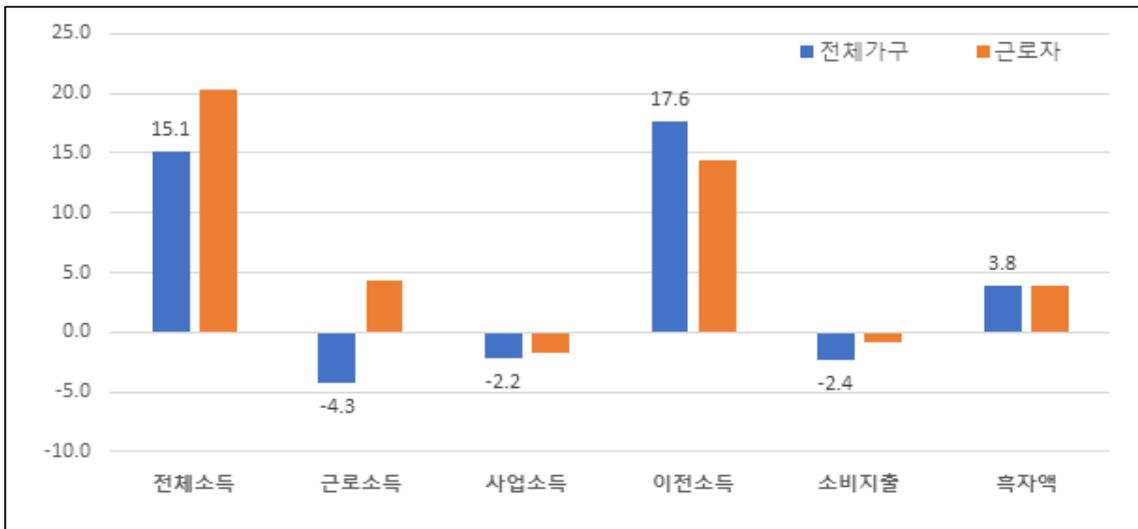
○ 코로나 중에도 상당수의 가계는 흑자 유지함(저축 또는 부채상환)

-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기회가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책, 급여보호 등으로 소득이 보전되었기 때문

- (소득) 2020년 전체 가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전년대비 4.3만 원, 2.2만 원 줄었으나 이전소득이 17.6만원 증가하는 영향으로 전체소득은 오히려 15.1만 원 증가
- (소비) 소비지출은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2.4만 원 감소
- (흑자) 이로 인해 가계의 흑자액(=소득-소비지출)은 3.8만 원 증가

〈그림 1-5〉 2020년 가계 : 근로소득↓, 이전소득↑, 소비지출 ↓ → 흑자액↑

단위: 만원 (전년대비 증감액, 전국 2인이상 비농림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이는 경기부진이 소비여력 부족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영업제한 때문임을 의미

-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

3. 정책적 시사점

□ 전 국민 대상 5차 지원금은 선거용 ‘돈풀기’ 외에는 설명 불가

- 여권의 5차 재난지원금 일정자체가 명백히 선거를 겨냥한 것
 -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로 대선 직전임
 - 지금부터 미리 균분을 때면 4·7선거도 ‘돈선거’의 영향권에 포함
- 더구나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에서 왜 지원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선거용 외에 달리 설명하기 어려움
 - 악화된 재정, 양호하다는 국내 경기, 글로벌 부양책 축소 기조, 인플레이션 우려 등 어느 면에서 보나 부적절

□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선별지급’ 지원금 검토

- 어떠한 재정투입이든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의적절(timely), 확실한 대상(targeted), 일시적(temporary)이어야 함
- 특히 영업제한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3항 손실보상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단, 핵심 쟁점은 매월 최대 약 25조 원이 소요되는 재원 마련인 만큼 불요불급 예산 축소, 국채 발행, 재정 긴급명령권 발동, 증세, 기금 활용 등 모든 대안을 열린 자세로 고민할 필요

□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의 선(先)제시도 병행되어야 함

- 책임 있는 정부라면 손실보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향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함

- 작년 12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막대한 국가채무가 발생했음을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2023년부터는 국가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고 호소하는 책임 있는 국가지도자 면모를 보여줌

○ 하지만 현금살포 선심성 입법을 줄줄이 통과시킨데 대한 진솔한 반성없이 그저 돈이 더 필요하니 ‘닥치고 증세’ 또는 ‘부자·대기업 증세’ 등을 추진하려는 여당의 후안무치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필요

- 국민의 조세부담, 정책 부작용 등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는 ‘증세안’은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부추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